

인성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사장 김 윤 찬

교지 「인성」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학원은 금년으로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새 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본교는 故 이기혁 목사님의 숭고한 건학 정신을 이어받아, 해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는 명실공히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본인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설립 초기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세워진 학교입니다. 6.25의 와중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기초도 없이 제일교회 단독의 힘으로 설립되었기에, 학교 시설면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법인의 역대 이사장님들과 이사들의 많은 수고와,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저희 학원의 설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역대 교장들을 위시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합심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인성이 영광스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인의 임원들의 협조는 물론 제일교회의 후원도 지나간 시절의 어

느 때보다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성인 여러분, 우리 모두 2000년대의 우리 인성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면서 최선을 다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송학 동산 위에 우뚝 세워진 우리 인성을, 우리 제일교회의 온 교우들과 학교 법인의 모든 임원들은 더욱 협조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